

## 공원법규보다 보존의지가 중요하다

배 유 현

(민주신문/시사뉴스 주필 · 본회사사)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활발하다. 필자도 분위기에 휩쓸려 최근 금강산에 다녀왔다. 관 광유람선 '봉래호'가 강원도 장전 포 구에 입항하면서 일행 사이에는 잠시 긴장감이 돌았다. 북한에 입국한다는 사실 자체에 조금은 짓눌리는 분위기였다.

안내원들은 우선 군사 항구인 장전 항에서 사진 촬영을 하지 말도록 여러 차례 당부했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지 말며 태극문양이나 영어 글씨가 눈에 띄어 북한사람들을 자극하지 말도록 권유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며 침을 뱉지 않도록 강조했다. 북측과 대화할 때 정치나 경제 문제를 언급하지 말도록 조언했다. 남측 일행들은 침착하고 질서있게

행동했다. 안내원들의 지시와 주문을 잘 따랐다.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차창 밖을 훑어보며 북쪽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도 했다. 안내조장에게 북측 말씨를 배우며 조선족 운전기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온정리 휴게소에서부터 본격 시작되는 금강산 관광은 온 천여행과 평양모란봉교예단 공연등이 포함된 색다른 여정이었다. 금강산은 우선 산수가 빼어났고 기묘한 봉우리와 산허리에 걸쳐진 구름과의 조화도 이채로웠다. 동해안이 보이는 망양대와 하늘문을 거쳐 오르는 천선대, 구룡폭포와 비봉폭포가 내려다 보이는 상팔담코스 곳곳에는 맑은 옥수가 그림같이 담소를 이루고 있

었다. 산행코스들은 대부분 수백년 묵은 우람한 적송 수림과 덩굴숲을 이루고 돌층계와 계단으로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하늘이 내린 아름다운 산행코스를 오르내리면서 남측 일행이 느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년 이상 진행된 남측 관광객만 해도 수만명은 다녀갔을텐데 깡통조각, 휴지 한 장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간간이 2명 1조의 북측 안내원들이 보일 뿐이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등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측 관광객들이 무단하게 북측 방문으로 견문을 넓히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소득이 있다.

그러나 남측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피부로 느낀 수확 중 큰 것 하나는 '법 규정보다 공원보존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금강산에 버금가는 국립공원이 20개나 있다. 도립공원이나 녹지공원 놀이시설과 공간까지 합치면 수천 수만개에 이를 것이다. 이 공원들의 이용자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수목을

꺾거나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산골짜기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음식찌꺼기를 돌 틈사이에 끼어 넣거나 흙에 파묻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범질서와 공중도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금강산에 가면 두말없이 범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금강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 싱가포르에도 있다. 싱가포르 어느 곳에서든 침을 뱉거나 담배꽂초를 함부로 버리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성방가를 하거나 방뇨를 하면 엄격하게 처벌된다. 그런데 싱가포르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얌전히 행동하고 법 준수에 충실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제 21세기-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더 공원법보다 보존의지가 범국민적으로 뿌리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